

제135호(2016. 11. 10.)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1. 가구의 김장 수요 전망	1
2. 김장용 채소 구매 의향	6
3. 김장용 채소 생산 및 가격 전망	10
4. 요약 및 시사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용 문의	김성우 연구위원	061-820-2115	swootamu@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2016년 김장철 소비자의 김장 의향은 작년보다 감소, 절임배추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 증가
 - 금년 배추김치 김장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작년과 비슷하거나(55%) 적게(28%) 담글 것으로 응답함. 이는 가구 내의 김치 소비량 감소와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임.
 - 금년 김장용 배추 포기 수(4인 가족 기준)는 22.7포기로 작년(24.2포기)보다 약 2포기 감소, 무는 8.7개로 작년(9.3개)보다 다소 적을 전망이다.
 - 김장 담그는 시기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이 각각 27.4%, 31.1%로 가장 많아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가구는 전체의 51%로 작년에 비해 2%p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절임배추 구매 이유는 '배추 절임과정이 번거롭고', '담그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임.
- 금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가격은 건고추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높을 전망
 - 2016년 김장철 배추·무 가격은 가을배추·무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은 각각 130만 톤, 45만 톤 내외로 전망되어 작년보다 높으며, 깎마늘 가격은 2016년산 마늘 입고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건고추 가격은 2016년산 생산량이 감소하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따라서 금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6% 내외 높을 전망
- 위생적이고 안전한 절임배추 생산 시스템 마련 필요
 - 최근 김장철에는 핵가족화, 소비 편의성 추구 등으로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된 형태의 김장 채소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김장용 주요 채소류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는 최근의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의 가공 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소비 감소와 김장 비용 상승으로 김장수요 작년보다 감소 전망

1. 가구의 김장 수요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소비자패널(759명)을 대상으로 금년 김장 의향을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6년 10월 24~31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음.

1.1. 가구의 김장 수요 분석결과

□ 김치 소비 감소와 김장 비용 상승으로 금년 김장 의향은 작년보다 감소

- 2016년 김장용 배추의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전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라는 응답이 55.2%, ‘전년보다 약간 적게 담글 것이다’는 25.2%, ‘전년보다 약간 많이 담글 것이다’ 15.1%, ‘전년보다 매우 많이 담글 것이다’ 1.8%로 조사됨.

표 1. 2016년 김장 의향 변화(전년 대비)

단위: %				
전년보다 매우 많이 담글 것이다	전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	전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	전년보다 매우 적게 담글 것이다
1.8	15.1	55.2	25.2	2.7

- 2016년 김장 의향이 감소한 이유는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소비량이 줄어서(43.8%)’, ‘김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21.9%)’, ‘김치냉장고에 저장된 김치가 남아서(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김장용 김치의 종류별 비중은 배추김치가 78.4%, 무김치가 14.4%, 기타 김치(오이소박이, 갓김치, 파김치 등)가 7.2% 순으로 조사됨.
 - 김장용 무 구매 시 형태별 용도는 김장양념용 51.1%, 깍두기용 21.9%, 동치미 12.0%, 총각김치 10.4%, 열무김치 2.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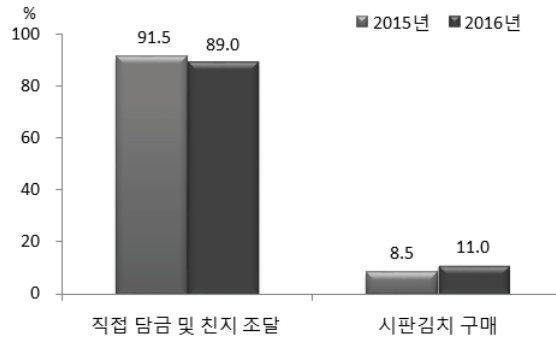
표 2. 2016년 김장 의향이 감소한 이유

구분	비중(%)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 소비량이 줄어서(외식 증가 등)	43.8
김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21.9
김치냉장고에 저장된 김치가 남아서	16.0
과거에 비해 배추김치 이외의 김치류(파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 선호도가 높아서	13.6
기타	4.7
계	100.0

□ 금년 김장김치 조달 방법 중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11%로 작년보다 높아

- 2016년 김장을 직접 담그거나 친지에게 조달하는 가구의 비중은 89%로 작년 91.5%에 비해 2.5%p 하락하였으며,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상승
 - 직접 김장을 하는 주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어서’가 50.3%, ‘시판 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가 있어서’가 34.7%, ‘절임배추, 김장양념(김칫소) 판매 등으로 인해 김장하기 편리해져서’가 9.1% 순으로 나타남.
 - 친지에게 무료 조달받는 비중은 14.4%, 친지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은 9.8%로 작년보다 감소, 시판용 김치를 사 먹겠다는 비중은 11.0%로 작년보다 증가

그림 1. 김장김치 조달방법별 가구 비중



□ 가구원수가 많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접 김장하는 비중이 높아

-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접 김장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구원수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분	직접 담금	지인에게 구매	지인에게 무료 조달	시판김치 구매	합계
2인 이하 가구	54.0	14.6	17.9	13.5	100.0
3인 가구	43.7	18.1	24.6	13.6	100.0
4인 가구	53.5	17.6	18.2	10.7	100.0
5인 이상 가구	62.6	9.2	19.9	8.3	100.0
계	64.8	9.8	14.4	11.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기보다는 주로 지인으로부터 구매(22.8%)하거나 무료 조달받는 비중(41.3%)이 높고, 50대 이상은 직접 김장을 하는 비중이 60~70% 내외로 대부분 직접 김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 연령대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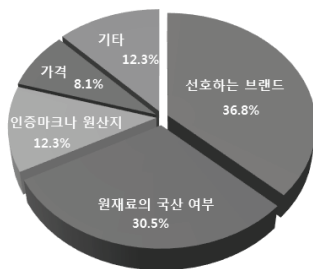
구분	직접 담금	지인에게 구매	지인에게 무료 조달	시판 김치 구매	합계
30대 이하	25.2	22.8	41.3	10.7	100.0
40대	42.9	22.3	22.8	12.0	100.0
50대	62.4	10.9	14.7	12.0	100.0
60대 이상	73.9	7.0	10.3	8.8	100.0
계	64.8	9.8	14.4	11.0	100.0

□ 시판김치 구매 시 브랜드와 국내산 여부 중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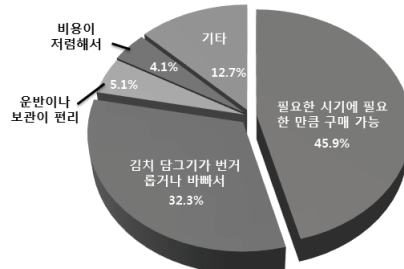
- 시판 김치 구매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36.8%, ‘원재료의 국내산 여부’가 30.5%, 인증마크(HACCP 등)나 원산지가 12.3%, 가격이 8.1%로 조사됨.
 - 그 외 포장단위(3.3%)나 제조일자(3.3%), 포장상태(1.2%) 등임.
-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이유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매 가능해서’가 45.9%,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가 32.3%, ‘운반이나 보관이 편리해서’가 5.1%, ‘직접 담글 때보다 비용이 저렴해서’가 4.1%로 조사되었음.

그림 2. 시판김치 구매 시 중요한 사항과 구매 이유

〈시판김치 구매 시 중요사항〉



〈시판김치 구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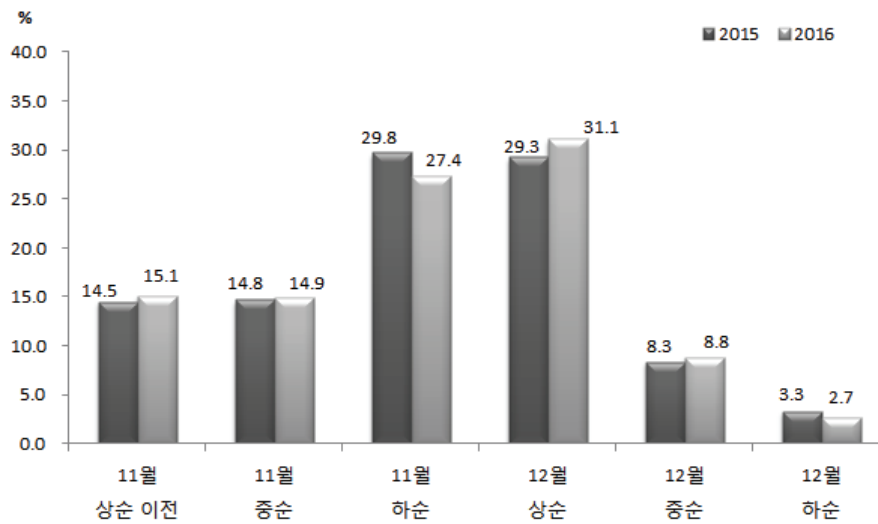


1.2. 김장 시기 및 김치양념 구매 경험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이 각각 27.4%,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기상예보에 따르면, 11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작년보다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그림 3. 금년 김장 시기 비교(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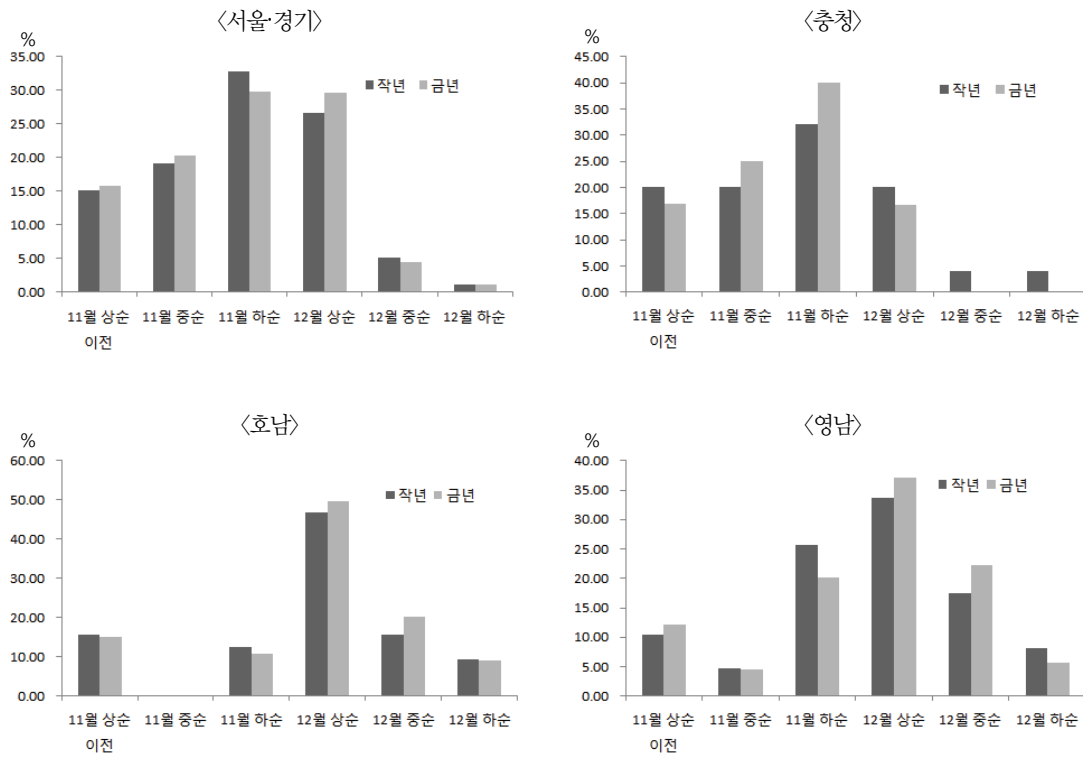


4

□ 중서부 지역의 김장 성수기는 11월 하순, 영·호남은 12월 상순

- 지역별 김장 시기는 서울·경기, 충청 지역이 11월 하순, 영남·호남 지역의 경우 12월 상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지역별 김장 시기 비교



□ 김장양념(김치소) 구매 경험 매우 적어

- 김장양념 구매 경험 가구는 매우 적고, 김장용 양념을 직접 만드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 김장양념 구매 경험이 있는 가구는 4% 수준으로 매우 적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양념을 직접 제조
 - 김장양념을 직접 만드는 이유는 ‘가족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가 55.3%, ‘김장양념에 들어간 재료들을 믿을 수 없어서’가 33.4%로 나타남.
- 김장양념(김치소)의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음.
 - 기존 김장양념 구매 경험이 있는 가구 중에서 향후에도 구매하지 않겠다는 가구가 84.7%로 조사
 - 김장양념 구매 경험이 없는 가구 중 14.1%가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장용 배추·무 구매량 작년보다 감소 절임배추 선호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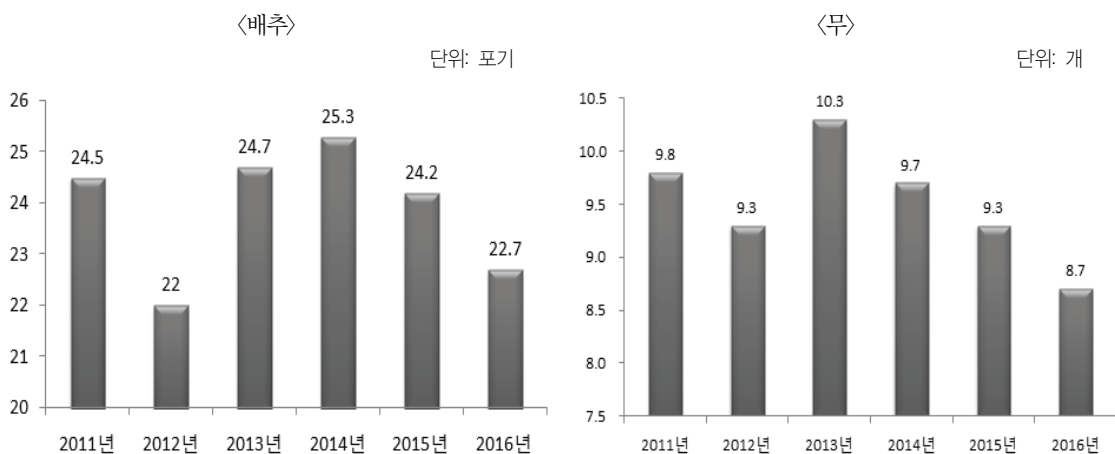
2. 김장용 채소 구매 의향

2.1. 김장용 채소 구매 의향 및 구매 형태 조사

□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와 무 소비는 각각 22.7포기, 8.7개로 작년보다 감소

- 4인 가족 기준, 금년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7포기로 작년(24.2포기)보다 약 2포기 감소하고, 무는 8.7개로 작년(9.3개)보다 1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금년 김장철 가구당 건고추와 마늘 소비량도 작년에 비해 각각 4%, 7% 감소할 것으로 조사
 - 건고추와 마늘의 구매 형태 조사결과, 건고추는 고춧가루 62.0%, 건고추 36.1%, 홍고추 1.9%이며, 마늘은 통마늘 64.8%, 깎마늘 24.3%, 다진마늘 10.9%로 나타남.
- 최근 5년 김장배추와 무의 구매 의향을 보면, 배추는 가장 낮았던 2012년과 비슷한 22.7포기, 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김장무 가격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률이 배추보다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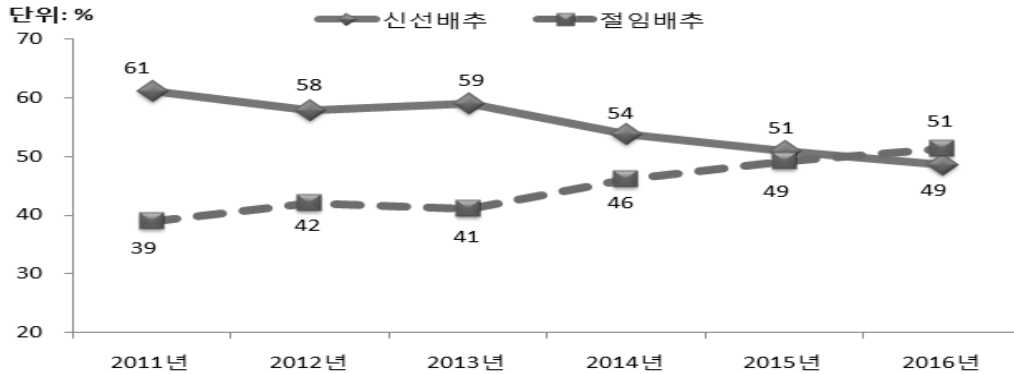
그림 5. 김장배추·무의 구매 의향 추이



□ 절임배추 선호도는 작년보다 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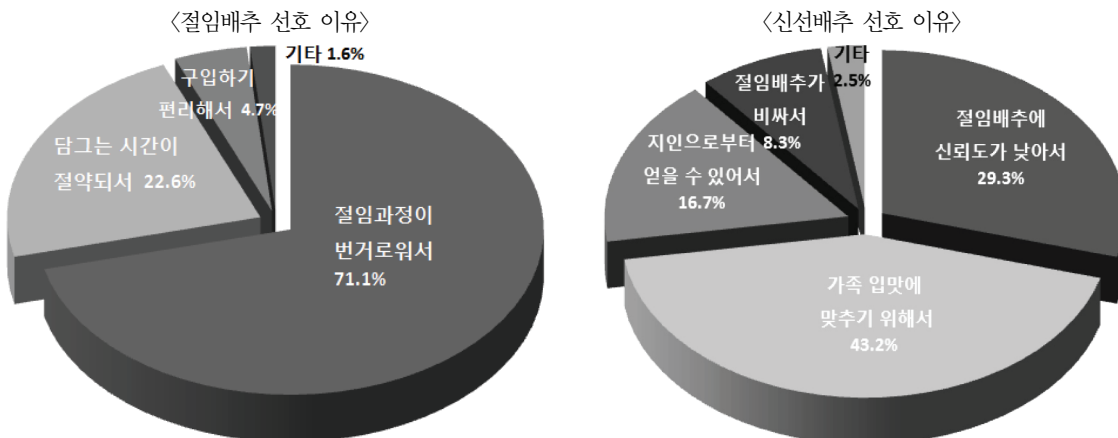
- 김장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48.6%, ‘절임배추’는 51.4%로 절임배추 선호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5년간 선호도 추이를 보면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절임배추 비중이 신선배추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6.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추이



-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주요 이유는 ‘절임과정이 번거로워서’가 7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담그는 시간이 절약돼서’가 22.6%로 나타남.
- 반면, 신선배추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족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가 43.2%로 가장 높았고, ‘절임배추 안전성 관련(가공과정의 위생, 포장 등) 신뢰도가 낮아서’가 29.3%, ‘지인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가 16.7%로 나타남.
-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선배추를 선호하는 가구의 경우, 절임배추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7. 절임배추와 신선배추 선호 이유



□ 금년 절임배추 도매시장 평균 판매가격은 10kg당 12,000원 내외

- 금년 김장철 가락시장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10kg 기준 평균 12,000원 내외로 조사됨(도매가격 기준).
 - 금년 신선배추 가격이 높아 절임배추 가격도 높은 것으로 조사
 - 절임배추 가격은 신선배추 시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금년 대형유통업체 및 농협의 절임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20,000원 /10kg 내외로 조사됨(소비자가격 기준).

표 5. 김장철 도매시장의 절임배추 평균 판매가격 및 신선배추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10kg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절임배추	12,000	16,000	11,000	14,000	12,000	11,000	11,000	12,000
신선배추	3,119	9,421	2,553	8,153	4,884	3,112	3,621	6,500 (전망)

주: 신선배추 가격은 11~12월 평균 가격(상품)이며, 2016년은 11월 기준임.
 자료: 서울 가락도매시장 대야청과 조사치(10월 31일).

2.2. 김장용 채소의 구매처 조사

□ 신선배추는 도매 및 재래시장을 통한 구매 비중이, 절임배추는 산지 구매 또는 유통업체 비중이 높아

- 김장철 신선배추 주요 구매처는 ‘도매(재래)시장 구매’가 4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가 15.6%로 조사됨.
- 김장철 절임배추 주요 구매처는 ‘택배 또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가 18.3%,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이 11.9%로 조사됨.

표 6. 김장용 채소 구매처별 비중

단위: %

구분	신선 배추	절임 배추	무	고추	마늘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40.7	11.9	43.0	3.6	21.1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등)	15.6	18.3	16.4	7.3	8.5
택배 또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	13.0	28.3	11.1	15.3	12.7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무료조달	12.6	7.3	10.1	36.5	12.7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	5.9	11.0	5.6	16.8	7.7
소매점(인근 슈퍼, 상가 등)	4.5	2.6	6.1	2.9	12.0
직접재배	2.2	0.9	1.9	2.9	2.1
임시장터나 트럭상	1.6	0.2	2.2	2.9	9.2
직거래 매장 또는 로컬푸드 매장	1.6	3.5	1.9	2.2	5.6
기타	1.3	6.3	0.2	1.6	0.0
친환경 매장(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	0.6	0.9	1.0	4.4	6.3
인터넷 쇼핑몰	0.4	7.9	0.5	2.9	1.4
김치공장에 주문 혹은 직접 구매	0.0	0.9	0.0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무나 마늘은 도매 및 재래시장, 고추는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무료조달 비중 높아

- 김장철 무의 주요 구매처는 ‘도매(재래)시장 구매’이 4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유통업체가’ 16.4%, ‘택배 또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11.1%로 조사됨.
- 김장철 고추의 주요 구매처는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무료조달’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가 16.8%,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15.3%로 조사됨.
- 김장철 마늘의 주요 구매처는 ‘재래(도매)시장 구매’가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지 직접 구매’와 ‘지인을 통한 무료조달’이 각각 12.7%로 조사됨.
- 시판김치의 주 구매처는 ‘대형유통업체 또는 백화점’이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이 28.9%, ‘인근 재래시장’이 10.5%, ‘동네 반찬가게’가 8.3%, ‘김치제조업체, 대리점, 공장 등에서 주문배달(직거래)’이 6.2% 순으로 조사됨.



금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가격(건고추 제외), 생산 및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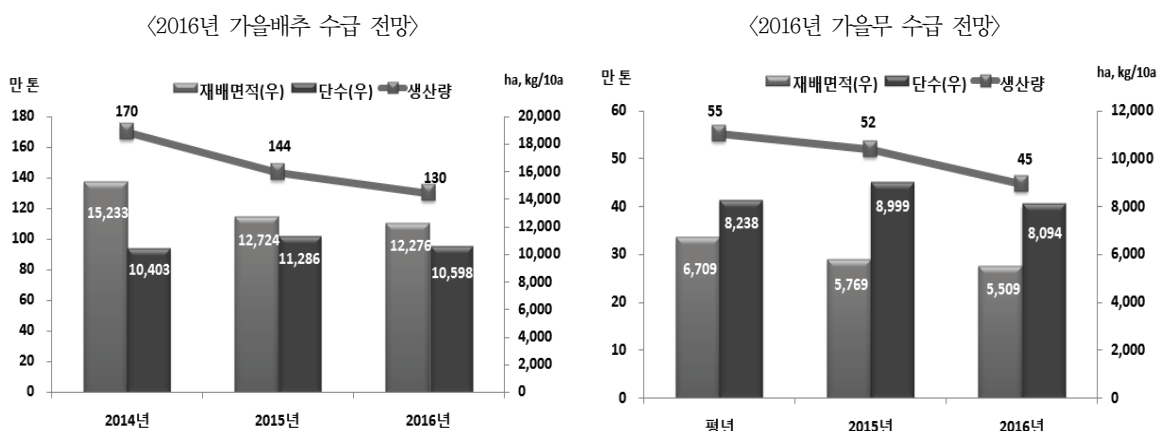
3. 김장용 채소 생산 및 가격 전망

3.1. 김장(가을)배추·무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금년 김장(가을)배추·무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9.4%, 14% 감소

- 금년 김장(가을)배추 생산량은 130만 톤으로 작년보다 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김장(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2,276ha로 전년보다 3.5% 감소하였고, 단수는 생육기 지속된 강우로 작황이 좋았던 작년보다 6.1% 적은 10,598kg/10a
-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44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무 재배면적은 5,509ha로 작년보다 5% 감소하였고, 단수는 작황부진으로 작년보다 10% 감소한 10a당 8,094kg
 - 가을무 주산지(충남 서산, 전북 고창, 부안 등) 8월(파종기) 가뭄, 9~10월 일조시간 부족으로 파종시기가 지연되었고, 구비대도 원활하지 못하여 작황 부진

그림 8. 2016년 가을배추 및 가을무 수급 전망



주: 2016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통계청.

□ 김장철 배추·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김장철 배추 상품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4,580원)보다 높은 6,500원/10kg(3포기), 무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8,490원)보다 높은 상품 14,000원/18kg 내외로 전망됨.
 - 작년 김장철 배추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3.2. 건고추·마늘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김장철 건고추 가격은 이월재고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고, 10월 대비 약세 전망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10% 이상 적은 8만 2,700~8만 8,200톤으로 전망됨.
 - 2016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3만 2,179ha로 2015년산보다 7% 감소, 단수는 전년보다 3~9% 적은 257~274kg/10a으로 추정됨.
- 2016년으로 이월된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평년(1만 2천 톤)보다 약 2.5배 많은 3만 톤 내외로 추정됨.
 - 2016년산 국내산 건고추 공급량은 평년(11만 2천 톤)보다 3% 많은 11만 6천 톤으로 추정
 - 10월 말 기준, 정부 비축물량(수입산 346톤 제외)은 국내산 12,798톤으로, 2013년산 5,798톤, 2015년산 7,000톤이 남아있음.
- 금년 김장철(11~12월) 화진 고추 상품 600g 도매가격은 전년(8,050원)과 평년 동기(8,900원)보다 낮고 10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이월 재고량이 많아 국내산 고추 공급량은 평년 수요량¹⁾(19만 톤)보다 11~14% 많을 전망

□ 김장철 간마늘 가격은 입고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높고, 10월 대비 강보합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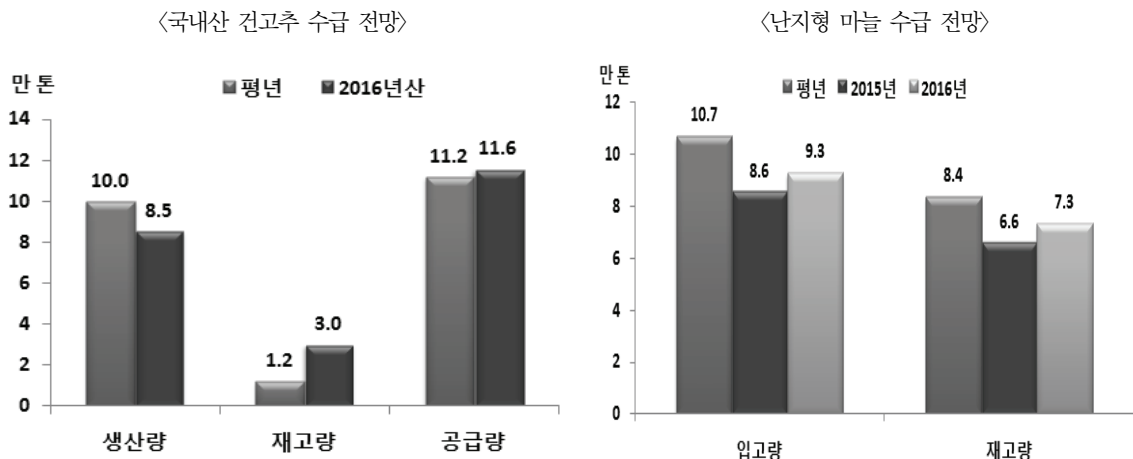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국내산 재고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나, 평년보다 12% 감소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9% 증가한 9만 3천 톤 추정
 - 10월까지의 저장마늘 출고량은 가격이 높은 남도종 소비 부진으로 초기 출고량이 적어 전년보다 4% 적은 1만 6천 톤 추정
 - 10월 말 기준, 감모를 감안한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전체 재고량은 전년보다 11% 많지만, 평년보다 12% 적은 7만 3천 톤 전망

1) 평년 수요량은 평년 소비량(1인당 KASMO 추정치(KREI)*인구수)과 평년 수출량의 합계임.

- 김장철(11~12월) 국내산 마늘 공급량은 평년 수준의 수요량(3만 톤, 한국농산물냉장협회 기준)보다 3,600톤 내외 적을 전망

- 금년 김장철(11~12월) 깻마늘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10월 대비 강보합세 전망
 - 11~12월 깻마늘 도매가격은 국내산 마늘 입고가격 상승으로 작년(6,980원)보다 높은 7,200원/kg 내외 전망. 김장철 마늘 가격은 TRQ 도입 및 비축물량 방출 영향으로 상승 수준은 제한적일 전망

그림 9. 국내산 건고추 및 난지형 마늘 수급 전망



주 1) 건고추 연산연도는 8월~익년 7월이며, 공급량은 당해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을 합한 수치임.
 2)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국내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였던 2011년산(7만 7천 톤)의 민간재고량은 없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3) 마늘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4.1%, 2015년산 3.5%, 평년 3.8%)을 적용하였고, 정부와 농협의 비축·수매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4) 마늘의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김장철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 작년보다 16% 내외 높을 전망

- 금년 김장철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은 8만 4천 원으로 작년(7만 2천 원)보다 16% 내외 높을 전망
 - 김장배추, 김장무, 깻마늘의 가격은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로 높으나, 고춧가루는 이월 재고량이 많아 작년보다 낮을 전망

표 7. 김장용 주요 채소류 11월 도매가격 전망(4인 기준)

품목	조사기준	작년 11월	금년 11월	증감률
배추	20포기	30,000	43,333	44.4
무	10개	8,490	14,000	64.9
고춧가루	1,86kg	25,110	17,670	-29.6
깻마늘	1,2kg	8,263	8,640	4.6
합계		71,863	83,643	16.4

단위: 원, %

4. 요약 및 시사점

- 금년 김장용 배추김치 계획량에 대한 조사결과, 작년과 비슷하거나(55%) 적게(28%) 담글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김장 의향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감소한 주요 이유는 가구 내의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고, 김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나타남.
- 일반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친지나 지인을 통해 구매·조달하는 비중은 89% (작년 92%)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는 가족 입맛에 맞출 수 있고 원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조사
 - 시판김치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김장철에 김장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매하거나 김장을 번거로워 하기 때문으로 조사
- 금년 절임배추로 김장을 하는 비중은 51%로 작년보다 2%p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선호 이유는 절임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으로 조사
 - 절임배추 증가 추이는 2008년 26.9%, 2012년 42.1%, 2015년 49.1%, 2016년 51.4%로 지속 증가 추세
- 금년 김장철 주요 채소류 가격은 건고추를 제외하고 생산 및 재고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김장철 가을배추·무는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고, 깎마늘은 2016년산 재고량이 적어 가격이 높을 전망
 - 건고추 가격은 2016년산 생산량이 감소하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을 전망
- 금년 김장철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6%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김장배추, 김장무, 깎마늘의 가격은 생산량 및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높으나, 건고추는 이월 재고량이 많아 작년보다 낮을 전망

- 과거 김장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고추, 마늘 등을 원물 형태로 구매하여 김장 재료를 가정에서 직접 절이거나 손질하여 김치를 담그는 형태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김장철 소비자의 채소류 구매 형태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깐마늘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는 핵가족화, 아파트 등의 거주 형태 증가, 조리의 편의성 추구 등으로 반가공 식품인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의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김장철 주요 채소류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는 최근의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의 가공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소비자 조사결과, 절임배추의 절임용 소금이나 세척용수의 위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배추를 절임배추로 가공 시 농가 단위보다는 GAP나 HACCP 체계가 도입 가능한 대규모 가공시설에서 가공할 필요성이 있음.



2016년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KREI 농정보커스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1. 1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19-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